“명진 스님, 영원한 대자유의 길로”

8월 25일, 봉은사서 종교사회장
종교·문화예술·시민 대거 참석
“개혁과 포용의 정신 이어가겠다”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명진 스님의 영결식이 8월 25일 서울 봉은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종교시민사회장으로 엄수됐다. 불교계를 비롯해 종교계와 문화예술계, 시민사회 인사들이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수좌 명진! 수좌 명진! 수좌 명진! 수좌 명진이 종단 울타리를 넘어 사회의 거리를 노닐다 영원한 대자유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어두운 거리에서, 노동 현장에서, 녹슨 철조망 위에 당신이 있었으니 그 어느 곳이 선방이며 그 어느 곳이 저잣거리입니까. 우리도 불퇴전의 기세로 오직 부처의 길 묵묵히 이어가겠습니다.”

출가 이후 철마다 선방에서 정진했던 수좌이자 민주화운동과 종단 개혁에 힘쓰며 사회적 약자들의 곁에서 위로와 연대에 함께한 명진 스님. 수행과 불교의 사회적 실천에 앞장서 온 명진 스님이 이제 그 모든 발자취를 뒤로하고 적멸의 길로 나아갔다.

명진 스님의 영결식이 8월 25일 서울 봉은사에서 종교시민사회장으로 엄수됐다. 이날 영결식에는 불교계를 비롯해 종교계와 문화예술계, 시민사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영결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정문 스님과 총무원 부실장 스님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 경우·진우 스님,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 기본선원 조실 영진 스님, 전국선원수좌회 상임대표 불산 스님, 문도 스님들을 비롯해 함세웅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고문,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전재수 부산시장, 세월호 유가족 등이 함께했다.

법주사 진공당탄성문도회장 도공 스님은 영결사에서 명진 스님을 “말에 거침이 없고 행동에 물러섬이 없었던 수좌 선객”으로 회고했다. 도공 스님은 “평소에 닦은 수행의 힘으로 사물과 상황을 꿰뚫어 보는 안목이 활발하게 살아있었다”며 “사회운동을 하고 종단개혁을 외칠 때도 출가 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방부를 들이고 철마다 선방에서 수행정진했다. 사회운동도 종단개혁도 수행의 방편이었고, 그 자체가 수행이었다”고 추모했다.

기본선원 조실 영진 스님도 “명진 스님은 조계종 선방 납자들의 지남이었고 종단의 미래를 밝히는 개혁가였으며, 우리 사회 약자를 살피는 관음의 화신”이라고 평가했다. 스님은 그러면서 “언제 어떤 자리이건 내 마음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주인공 정신을 실천했다”며 “법의 바다에 인장을 새기듯 파도가 돼, 물결이 돼 다시 오소서”라고 스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스님과 인연을 맺어온 시민사회 인사들도 명진 스님의 개혁정신과 포용정신을 기리며, 스님이 실천해온 자비와 연대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호상(護喪)을 맡은 법주사 주지 정덕 스님은 “저희 후학들은 스님이 남긴 발자취를 이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스님의 가르침을 잘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

문도대표 선용 스님도 “16년 만에 봉은사에 돌아온 은사 스님을 여법하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도와준 조계종과 전통다비를 할 수 있도록 해준 법주사에 감사드린다”며 “은사 스님께서 일상에서 몸소 보여주신 하나하나가 수행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그 모습을 계승해 실천하면서 살아가겠다.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도 스님이 늘 함께하길 바란다”고 감사를 전했다.

영결식 이후 명진 스님의 법구는 법주사로 이운돼 다비가 엄수됐다. 명진 스님의 49재는 8월 28일 초재를 시작으로 △2재 9월 4일 문경 봉암사 △3재 9월 11일 보은 법주사 △4재 9월 18일 강화 보문사 △5재 9월 25일 인제 용화선원 △6재 10월 2일 괴산 공림사 △7재 10월 9일 서울 봉은사에서 봉행된다.

총무원장 선거 후보들도 “원적 애도”

경우 스님 선대위 “큰 등불 입적”
진우 스님 “가르침 계승” 약속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들도 명진 스님의 입적에 애도를 표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후보 경우 스님 선거대책위원회는 8월 24일 애도문을 내고 “이 시대 불교가 나아갈 길을 몸소 밝힌 큰 등불이었다”며 명진 스님의 입적을 추모했다.

선대위는 “명진 스님은 수행자의 본분을 바탕으로 평생 세상의 아픔과 함께했다”면서 “민주화와 평화를 염원하는 현장에서, 노동자의 아픔이 있는 자리에서, 사회적 참사로 상처 입은 이들의 곁에서 늘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부처님 자비는 사찰 울타리를 넘어 세상 속에서 꽃피어야 하며, 수행자 정진은 고통받는 중생과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됨을 일깨워준 스님의 가르침은 한국불교가 되새겨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며 “고통받는 이들의 곁을 평생 지켜온 스님의 원력이 우리 사회에 온전히 회향되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기호 3번 진우 스님은 8월 23일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인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명진 스님의 입적 소식을 접하고 하늘의 해가 사라지기라도 한 것처럼 마음이 먹먹했다”며 “비록 명진 스님의 법신은 가고 없어도 명진 스님께서 남기신 가르침만은 세세생생 계승될 것”이라고 추모의 뜻을 전했다.

특히 진우 스님은 명진 스님이 이끌었던 1994년 종단개혁의 의미를 짚으며 “94년 종단개혁 이후 종도들의 여망에 부응해 총무원장 선거가 321명의 간선제로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앙종회에서 총무원장을 선출했던 예전의 선거제도보다는 진일보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다”며 “추대제부터 직선제까지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사부대중의 지혜를 모아 승가 고유의 전통을 살리고 종단의 위상에 맞는 선거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약속하기도 했다.

진우 스님은 “총무원장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명진 스님의 유훈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명진 스님의 영결·다비식이 여법하게 봉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명진 스님의 속환사바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후보를 사퇴한 정념 스님도 8월 23일 애도문을 발표하고 “스님의 갑작스러운 입적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스님께서 남기신 거룩한 발자취를 되새긴다”고 추모했다.

신중일 · 임은호 · 김내영 기자

동국대 불교학술원, ‘AI 불교문화’ 특강 개설

전통문화연구회와 MOU 체결
AI시대 불교학 연구 역량 함양



AI시대에 새로운 불교학 연구 역량 함양을 위한 특강이 개설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묵 스님)이 전통문화연구회(회장 김현)와 “8월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학기에 ‘AI와 협업하는 불교문화 큐레이션’ 15주 특별 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사진〉

특별 강좌는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를 맞아 불교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유산을 연구 자료로 활용하여 AI시대에 필요한 지식 구조화 방법론을 학습하고, AI와 협업하여 새로운 불교학 연구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불교문화 관련 강좌의 주요 연구 대상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사찰 중 하나인 송광사다. 송광사가 배출한 고승들, 송광사에서 간행된 불전들, 송광사의 다양한 문화유산들에 담겨 있는 지식정보를 조사하고 구조화해 AI가 한국불교 문화를 정확하게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실습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15주간 진행되는 이번 특별 강좌에는 전통문화연구회를 이끌고 있는 김현 동국대 석좌교수, 인문정보학 전문가인 서소리 박사, 한국불교 전문가인 김용태 불교문화연구원 HK사업단 교수, 문헌 전문가인 서수정 불교학술원 전임연구원 등이 강사진으로 참여해 학제 간 협업 강의를 진행하고, 실습을 병행한다. 신중일 기자

진각종, 제60기 회당장학생 연수 성료

8월 24~25일, 서울 진각전승원서
‘다 때가 있다’ 주제 진각스테이



진각종이 대학생 48명에게 회당장학금을 전달하고, 회당대종사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진각종(통리원장 능원 정사)은 8월 24~25일 서울 진각문화전승원 일대에서 진기 80(2026)년 제60기 회당장학생 연수를 개최했다.

‘다 때가 있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연수에는 서울·대구·부산·대전·경주·포항·전라·경북 등 8개 교구에서 선발된 회당장학생 48명이 참여했다.

8월 24일 오후 진각문화전승원 대강당에서 열린 발단불사에서 통리원장 능원 정사(회당장학회 이사장)는 인사말을 통해 “1박 2일 동안 오늘 내 자신을 잘 돌아보고 성찰해 내면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한 여러분 모두가 좋은 도반으로서 앞으로도 좋은 인연을 이어가기를 서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 때가 있다’는 이번 연수의 주제처럼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의 때’를 없애기 가장 좋은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연수는 소통과 현대적 감성을 융합한 진각종만의 새로운 불교문화 프로그램인 ‘진각스테이’를 테마로 진행됐다.

첫째 날인 24일에는 오리엔테이션 및 아이스브레이킹을 시작으로 발단불사와 장학 증서 수여식이 진행됐다. 이어 △통리원장 능원 정사의 ‘다 때가 있다-참회’ 주제특강 △마음결 찾기 명상(필터링·걷기·만트라·컬러명상 등) △나의 때를 씻어내다(강연 돌아보기, 나의 때 적어보기 등) △나의 미래의 때(하루를 돌아보고, 미래의 내 모습을 생각해 보기) 등을 진행했으며, 둘째 날에는 △개명정진 △‘다 때가 있다-인연’ 특강(총무부장 원상 정사) △연수 돌아보기(연수와 관련된 퀴즈대회) △해단불사 등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임은호 기자

